

화장실문화 개선 - 철도가 앞장섭니다

철도청 영업본부



영업본부 여객과
손길신 과장

오래된 역사만큼 노후화된 건물에 화장실이 같이 있어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개선사업을 벌이고있는 철도청 영업본부를 찾아 그 동안의 개선사업과 향후계획을 들어본다.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중인 철도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Patrol - Monitoring 결과 화장실 환경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 되었습니다. 역의 화장실을 최소한 공항의 화장실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정종환 철도청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하여 '98년말 부터 개선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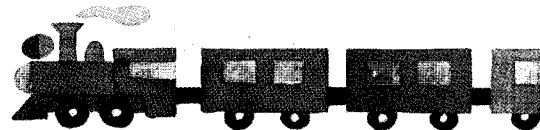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악취가 나지않고 조명을 밝게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같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항, 호텔, 백화점등 우수 화장실을 견학하여 필요한 내장재, 비품등의 설치를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닥과 천장등 내장재와 변기 및 세면기등 설비를 고급화 하였고, 여자 화장실에 아기와 동반한 여성들을 위해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간단히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실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에티켓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견학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보려고 하였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가까운 역에 지원 요청을 하여 정복을 입은 역장과 동행하였던 웃지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익산역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다.





여행객을 위해 휴대품을 올려놓을 선반이나 옷걸이, 방향제, 액자등 각종 비품의 설치는 물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 자동문과 물내림버튼, 긴급시 요청할 수 있는 인터폰을 여자화장실까지 확대 설치를 하였고, 음악과 열차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630개 역의 화장실 중에서 우선적으로 17개 주요 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99년말 현재 30여개의 역이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철도청이 화장실 문화 개선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개선된 화장실을 이용해보신 여객들 대부분이 화장실이 정말 확 달라졌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지자체 및 각종단체 등에서 화장실 견학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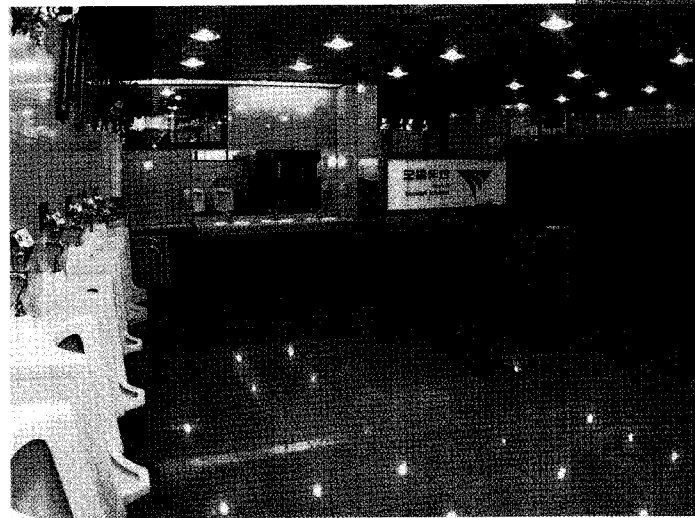
철도역의 화장실에 비치되는 화장지 구입비용만 1년에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겠지만 일부 설비의 파손과 비품의 분실로 개선작업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휴지등 소모품의 절약과 낙서금지 및 청결유지에 조금만 협조하여 내집같이 화장실을 이용하여 주신다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정착 시기가 훨씬 앞당겨 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대가 큼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과 화장실의 청결 사용 캠페인이 함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아기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해 기저귀교환대와 아기보호대를 설치했다.

화장실의 개선 사업에는 대표자의 과감한 결단과 선진 시민의식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작은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철도청을 나서게 되었다.



▲ 광주역 남자화장실이 새롭게 단장했다.

